

〈특집: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의 역사·문화적 의의〉

예수재의 의문 구성과 의례 실행의 특성* -의문 자료와 청련사 예수재를 중심으로-

이 성 운 **

〈목차〉

- I. 서언
- II. 의례 성립의 특성
- III. 의문 구성의 특성
- IV. 의례 실행의 특성
- V. 결어

[국문초록]

불교에는 중생을 구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예수재는 사후에 다른 이들이 망자를 위해 시설하는 칠칠재(사십구재)를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직접 닦는 의례이다. 이 글은 예수재 의문의 구성과 실행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첫째 예수재의 의례가 성립된 것은 일반적인 시왕 신앙이나 예수 신앙의 측면이 아니라, 의문의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수록재 찬요(중례문)의 명부 시왕을 중심으로 한 수록재의 형태로 16세기 초반 국내에서

* 이 논문은 2019.1.19. 양주 청련사 개최한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의 역사·문화적 의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예수재 의문은 천신의 공양이 중심이며, 소청과 예경의 차서와 위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의문과 달리 의식 설행은 현실적인 형편에 따라 설행되며, 화청으로 의례의 재설이 일어나고 있고, 금강경이 염송된다는 것이다. 셋째 의례 설행의 특성에 대해서는 양주 청련사 예수재 의문과 의례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다시 의문과 설행의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면, 의문의 측면으로는 어산 상진의 범패 계통이 드러나고, 현실적인 요소와 의문의 권위가 동시 반영되고 있고, 예의와 의례의 형식이 중시되고 있으며, 설행의 측면으로는 청련사라는 단일 사찰의 상주 승려들이 다 함께 의례에 참여한다는 것, 탁월한 능력을 가진 범패 어장 상진이 주도한다는 것, 사찰 당우와 중정(中庭)이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청련사, 예수재, 어장 상진,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명부시왕, 화청(和請)

I. 서언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한용운은 이렇게 갈파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우리들 최대의 희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대개 희망이란 생존진화의 기본이다. 만일 희망이 없었다면 방종하고 나태하여 하루하루 편안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어느 누가 그 마음을 쓰고 그 힘을 수고롭게 하여 일을 하겠는가. 희망이 없으면 공간 내에 모든 인류나 동물들은 정지하고 말 것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황폐하고 음탕하며 나쁜 짓만 하여 전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의 생애와

야만의 행위로 몹시 비참하고 몹시 추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벌써 자취를 감추어 무인지경이 되며 다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희망이 크지 못할까를 염려하여 무형 속에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돈을 거짓으로 마련하여 불쌍한 중생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희망을 주었다.”¹⁾ 한용운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열반경』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례 출현의 이념이고 실행의 대의라고 할 수 있다. 예수재에서도 행해지는 영산작법의 출산계송은 “若也山中逢子期：혹여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던들，豈將黃葉下山下：어찌 버들잎 들고 산을 내려 왔으리.”²⁾라고 설파하고 있다. 불교 출현의 목적은 오로지 중생의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우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 당신이 깨친 진리는 욕망의 경향을 지닌 이들에게는 전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만 피곤해지고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러자 싸함빠띠(범천)가 진리를 설하지 않으면 세계는 파멸할 것이라고 하며 설법을 권청한다.³⁾ 범천의 권청을 받아들여 설법을 시작함으로써 중생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달아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게 되었다. 붓다의 출현은, 불교의 출현은 의례의 출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산 속에서 있지 않고 방편을 가지고 중생의 곁으로 내려왔다.

중생이 종교를 믿는 것은 종교의 진리를 믿고 따르면 그들의 희망이 이뤄진다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빛을 갠고 공덕을 닦는다’는 예수재의 그것들은, 중생의 간절한 희망과 그들의 희망을 들어주는 불교와의 만남의 마당에서 이뤄지는 불교의 가치이고 불교의 질서이고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 韓龍雲 著，徐景洙 譯，『朝鮮佛教惟新論』，三星文化財團，1972，18쪽.

2) 智禪 撰，『五種梵音集』，韓儀叢 2，183상쪽.

3) 전재성 역주，『마하박가』，한국빠알리성접협회，2014，90~91쪽.

불교의 예수재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독창성이 돋보이는 전통문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인 예수재의 의례 성립의 특성과 예수재 의문의 구성에 나타난 특성 및 현재 한국불교와 양주 청련사 그것들의 설행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것들에 대한 미진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예수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시왕신앙 그것과의 차이와 예수재 발생 배경을 통해 성립의 특성을 찾아볼 것이다. 셋째 장은 전통 예수재 의문이 가지고 있는 구성의 특징을 전통 예수재 의문의 출전을 중심으로 그 구성의 특성을 살필 것이다. 넷째 장은 한국불교 사찰의 전반적인 예수재 설행과 청련사의 그것을 중심으로 설행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문의 역사적인 변천에서 드러나는 주석과 사회문화적 수요 등에 눈길을 돌리며, 의례 체계 간의 관계를 예측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그간 미진한 영역이었던 예수재 성립과 의문 및 성립의 특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I. 의례 성립의 특성

예수재의 성립을 논할 때 늘 언급되는 것은 예수재의 소의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나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과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의례의 설행 연유를 밝히는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의 간행과 시왕사(十王寺)의 건

립 등이다. 10세기 말에 개경에 시왕사(十王寺)를 건립하였다거나 14세기 중엽 1246년 『예수시왕생칠경』이 간행되었다거나 1566년 성천 백련사 영천사에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가 간행되었다는 사실들이 거론되고,⁴⁾ 또 1518년 설행된 소번재(燒番齋),⁵⁾ 예수시왕재소(預修十王齋疏)의 등장,⁶⁾ 시왕도의 조성이 언급되곤 한다.⁷⁾ 이와 아울러 여말선초의 추천의식들과 연관하기도 하는데⁸⁾ 의미 있는 진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예수재의 성립에 관한 제반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예수재 의례 자체의 형식과 형태, 그리고 시왕재와 예수재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시왕재가 예수재라면 시왕재라고 하지 굳이 예수재라고 명명할 이유가 없다. 예수재 성립의 특성을 살피기에 앞서 불교 ‘재의식’에 대한 구분이나 분류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의식을 분류한 최초의 의례자료집은 안진호의 『석문의범』(1935)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편자의 『불자필람』(1931)에도 불교의례를 분류하지만 여기서 언급할 ‘재의식’에 대한 분류는 『석문의범』이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재공편(齋供編)에서 상주권공(常住勸供), 영산재(靈山齋), 각배재(各拜齋), 생전예수(生前預修), 수륙재의(水陸齋儀)의 다섯 가지로 재공의식을 제시하고 있다.⁹⁾ 이 분류를 설명하며, 심효섭은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49재, 수륙의 모든 유정을 천도하는 수륙재,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아

4)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33~34쪽.

5) 『증중실록』 권34, 13년(1518) 7월 17일(갑인) 3번째 기사.

6) 普雨, 『懶庵雜著』, 『韓佛全』 7, 587하~588상쪽.

7) 최종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79~85쪽. 논자는 보우에 의해 열린 예수재는 지장시왕도가 조성된 1562년에 설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 李應周, 「麗末鮮初 佛教儀禮의 축소와 薦度齋의 역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쪽

9) 安震湖, 『釋門儀範』上卷, 卍商會, 1935, 108~270쪽.

극락왕생한다는 생전예수재가 있다고 하며, 이들 의식을 치르는 양식으로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 등이 있다고 하고 있고,¹⁰⁾ 홍윤식은 『석문의법』이 제시한 다섯 종의 재공의례에 대해 수록재의와 예수재의는 내용상의 분류이고, 상주권공과 영산재와 각배재는 형식상의 분류라고 이해하며, 이 견해를 바탕으로 영산수록재 영산예수재와 같은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¹¹⁾ 이 견해를 따르면 상주권공과 영산재, 각배재는 형식상의 대소(大小)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영산재와 상주권공은 대소의 의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각배재는 명부시왕을 각각 청해 공양하고 예경하며 아울러 하위의식이 존재하여 영산재와 상주권공과는 동일한 유형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¹²⁾ 또 내용상 분류라고 하면 망자와 산자를 위한 의례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형식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재공의식에 대한 분류와 설명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고, 49재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비불교인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용어이다.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49재’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다. 49재는 49일재의 약식어법으로 막재인 7재, 다시 말해 49일 되는 날 재를 올린다는 의미로서 전통의 칠칠재 형식이나 명칭이 49재로 대체되었다. 49재의 형식은 흥운식의 재공의식 분류인 상주권공, 영산재, 각배재가 49재의 형식으로 재의 설판 규모에 따라 선택하여 봉행된다. 그러므로 “재의식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49재와 수록의 모든 유정을 천도하는 수록재, 살아

10) 심효섭,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쪽.

11)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12쪽;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대한불교천태종, (사)진단전통예술보존회, 2015, 19쪽.

12) 이성운, 「預修齋와 各拜齋의 同異」, 『정도학연구』 30집, 한국정도학회, 2018, 206~207쪽.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아 죽은 후에 극락왕생한다는 생전예수재 등이 있다”며 “이들 의식을 치르는 양식으로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가 있다”고¹³⁾ 하는 표현은 명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는 오늘날의 49재의 형식일 수는 있어도 수륙재나 예수재의 형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용상이나 형식상의 분류라고 할 때, 생전예수재를 상주권공재나 각배재, 영산재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재의 의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간행은 예수재 성립의 단초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예수재 의문의 간행이 예수재 성립의 제일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예수재의 핵심인 명부 시왕에 대한 권공만을 단순히 논하게 되면 시왕사의 건립이나 시왕재의 실행, 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문』의 출현만으로도 예수재 성립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부터 생전예수재 성립의 한 요소들로 알려진, 소의경전과 의문, 예수시왕재소 등을 중심으로 성립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는 두어 가지 줄기로 대별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다. 예수재는 단순한 시왕신앙인가, 예수신앙과 예수재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예수재 의문의 원초 의문은 무엇인가, 아울러 예수재가 왜 출현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 등이다.

첫째, 예수재는 단순한 시왕신앙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예수재가 단순한 시왕신앙이라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생전예수재에 대한 일체의 논의는 시왕사의 건립이나 소의경전 간행으로 논의가 중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재의 소의경전이라고 알려진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의거하여, 예수(預修)를 하고자 하면 매월 두 번[초하루, 보름]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시왕단을 설치한 다음에 기도하며 이름을 납입장에 적고는

13) 심효섭,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11쪽; 최중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1쪽.

육조의 관리와 선업동자, 천조와 지부의 관리 등에게 알려 이름을 명단에 기재하면 몸이 죽어 그곳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쾌락한 곳에 이르러 중음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¹⁴⁾ 이 경전에 의거하면 예수하는 시기는 초하루 보름의 두 번이고, 삼보에 공양하고 시왕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본질이라, 윤달에 주로 설행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 경전에 의거하면 현재의 초하루·보름의 공양의식이 예수의식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소의경전의 사상은 유의미하지만 단순히 시왕의 권공이 예수재의 성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생전예수재는 시왕신앙이라고만 판정하기 어렵다.

둘째, 생전예수재의 의문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와 관련해서 그 성립 인연 등을 밝혀보는 것인데, 이 의문의 원초의래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釋門正統』에조차 시왕의 명호를 소개하며 그 용례로 수록의문의 서문을 들고 있다.¹⁵⁾ 또 중국에서 생전예수재가 만당 이후 송나라 때까지 크게 유행하였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설행되고 있다는 보고조차 보이지 않는다. 중국불교협회에서 간행한 「중국불교의례제도」에는 15종의 중국불교 의례 가운데 ‘생전예수재’에 관련된 의례는 보이지 않으며,¹⁶⁾ 『中國の佛教儀禮』에도 조모과송과 수록법회 등이 조사돼 있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¹⁷⁾ 일본불교에는 수록재조차 순수한 ‘시아귀회’로 설행되고 있을 뿐,¹⁸⁾ 예수재가 설행된다고 할 근거

14) 『佛說預修十王生七經』, X 1, 408쪽.

15) 宗鑑集, 『釋門正統』第四, X 75, 304a쪽. “有十王經者, 乃成都府大聖慈寺沙門藏川所撰. 又水陸儀文敘曰: 圖形於果老仙人(唐張果老畫幀), 起教於道明和尚, 雖冥司有十王之號.”

16)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17) 鎌田茂雄著, 『中國の佛教儀禮』,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18) 이소오카 테츠야, 「水陸齋의 사회학적 의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

는 찾아지지 않는다.¹⁹⁾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라고 ‘찬요’(纂要)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의문의 원초 의례가 존재해야 하지만 보고되고 있지 않는다.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록재 가운데 ‘찬요’라고 하는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中禮文』)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서문 작성 예와 구문 축조를 보면 예수재 의문은 『중례문』의 그것과 유사하다. 가령, 수록재 ‘찬요’의 서문에는 수록재의 실행 인연을 밝히고 있는 데 비해 수록재 ‘촬요’의 그것에는 무차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록재 ‘찬요’에서 아난존자에 의해 가르침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듯이 예수재 의문의 서문 격인 ‘통서인유편’에는 병사왕(瓶沙王: 빈비사라왕)이 즉위하여 생전예수재를 닦았다고 하는 인연의 단초를 밝히고 있다. 수록재가 아난존자라는 출가자에 의해 그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예수재는 ‘병사왕’이라는 재가자에 의해 그 가르침이 베풀어지게 되었다고 하다는 것은 예수재의 역할에 주요한 의미를 제시해 준다.²⁰⁾

예수재 의문은 ‘찬요’라는 명칭이나 서문의 문법, 구조 등에서 『중례문』의 그것과 유사성이 발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례문』의 원전이라고 확인되는 1150년 금나라 자기(子夔)가 찬집한 『천지명양수록의문』²¹⁾의 국내 판본인 자기(子夔) 집(集) 『불설염구경천지명양수록의문』(권하)의 시왕 청사 형식은 유사하나,²²⁾ 내용은 『권공제반문』²³⁾과 유사하다. 이 『천

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삼화사 국행수록대재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2, 91쪽.

19)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 23집, 한국정토학회, 2015, 16쪽.

20)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 19쪽.

21) 鄭明熙, 「鮮時代 佛教儀式的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30쪽;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書誌學研究』 43輯, 書誌學會, 2009, 123쪽.

22) 子夔 集,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 순천 송광사 개간, 1532.

지명양수륙의문』은 성암박물관에 소장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송광사에서 개간한 하권이 공개되어 있다. 이 의문의 65편이 시왕 등의 명부청이다. 『중례문』은 이 100편본에서 54편으로 초출하여 축약하고 있다.²⁴⁾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31편 또한 『중례문』의 구조를 따르면서 편찬하고 있는 것이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수록재 『중례문』의 중위 신증 가운데 잘 부각되지 않은 명부 시왕 등 명부증을 중심으로 예수재 의문을 찬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왕의 초하루·보름의 시왕권공 의식은 예수하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왕사 건립이나 시왕재의 설행은 사찰의 건립과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시왕재의 의식이 예수재의식으로 승화되었을까. 예수재의식의 특성에서 그 성립의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록재나 영산재 또 예수재의 설행 목적이 드러나는 것은 소문이다. 수록재이든 영산재이든 예수재이든 재회를 여는 목적을 밝히는 소문은 재회를 여는 이가 하명[護命]의 구조로 되어 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명한다는 것은 명하는 존재가 국왕 등 상위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의문의 수록재나 시왕을 칭하는 예수재 소문에서 명하는 존재가 『천지명양수륙잡문』에는 ‘대단신(大檀信)’²⁵⁾이라고 나오나 『天地冥陽水陸儀文』에는 ‘수륙회수(水陸會首)’²⁶⁾로 나타난다. 16세기 이후 예수재가 수록재에서 독립되어 나타나면서 수록회나 예수재를 다른 의례로 이해하지만 그 근원은 수록재의 시왕청이 독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불교 수록의문에는 수륙회수가 시왕을 칭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한국불

23) 『勸供諸般文』, 석왕사, 1574, 韓儀叢 1, 651~659쪽.

24)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134~136쪽; 仔夔集,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1532, 순천 송광사 개간), 65편.

25) 『天地冥陽水陸雜文』卷下, 韓儀叢 1, 548하쪽.

26)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校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166쪽.

교 예수재에서는 대단월이 명하고 있다. 이 점은 수록재 또한 같다. 4성 6범을 청해 공양을 올리고 시식을 하는 수록재에서 지장보살과 시왕과 그 권속을 청하여 별도의 약식 수록재를 형성하면서 예수재는 수록재와 다른 의례라고 이해하게 되어 ‘예수재와 수록재의 합설’²⁷⁾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모두는 수록재의 한 부분 의례일 뿐이다. 16세기 중반 간행된 『오종범음집』의 오종의례인 ‘영산작법, 중례, 결수, 예수, 지반’을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에서 수록재의 의문으로 수용해 놓고 있으며,²⁸⁾ <10권자기문3주야작법규>에 의하면 2일차 재후(오후)에 예수작법을 행하고 있다.²⁹⁾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예수재가 수록재에서 분리되었을까. 영산재는 당해 망자의 칠칠재에 행해지고, 수록재는 기신재에도 활용되며 4성 6범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식의 주 대상은 무주고혼이다. 망자도 아니고, 무주고혼도 아닌, 산 자를 위한 권공축원은 기왕의 『권공제반문』의 ‘시왕재’와 ‘나한재’ 등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 재의는 소규모 재라고 할 수 있다. 예수재가 등장한 시기인 16세기 중엽, 문정왕후와 보우에 대해 설행된 예수재를 놓고 보면 당 시대의 정치 사회적 혼란상과 왕실의 안녕을 발원하는³⁰⁾ 데 소규모 생축권공으로는 무언가 미진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새 망자를 위한 영산재나 각배재, 무주고혼의 수록재를 거창하게 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수록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설판 상황에 따라 대·중·소의 의문을 활용해 시간의 장단을 가지고 설행하는 예처럼³¹⁾ 생축발원의 예수신앙을 수록재

27) 최중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88쪽. “제4절 선조대 예수재와 수록재의 합설”

28) 智還 撰,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韓儀叢 1, 462~523쪽.

29) 智還 撰,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521중쪽.

30) 최중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87쪽.

31) 논자는 <구미래,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에 대한 논평문>, 한국정도학회, 17차 학술대회 『조상신앙』, 2014. 98쪽에서 ‘재의 경제학’이라 언급하

와 같은 대형 의례를 시왕위주로 간소화하여 소구소망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을까 한다. 예수하다 보니 재의 목적이 ‘현증복수(現增福壽) 당생정찰(當生淨刹)’로 나타난다. 현생에서 복과 수명을 늘이고, 오는 세상에 왕생극락을 이루고자 재회를 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재는 예수신앙의 유사성이 있으나 평상의 시왕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록재의 명부시왕과 권속을 집중적으로 초청해 공양하고 전생의 빛을 미리 갚으며 선근 공덕을 닦아 현생에서도 복과 수명을 늘이고 내생에는 왕생극락을 이루려는 2중의 소원을 동시에 성취하는 의례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수록재의문인 『천지명양수륙의문』과 『권공제반문』 등의 지장보살과 좌우보처존 및 시왕과 그 권속을 중심으로 초청하는 의식을, 수록재 찬요인 『중례문』의 형식에 맞추어 집술(集述)한 것이나 유력한 재자의 사적 소구성취를 위한 설판으로 성립되기 시작하게 된 것은 국가의례로 출발한 수록재와는 그 성립 계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사적인 소구성취를 위한 설판은 수록재 의문 곳곳에 그 모습이 남겨져 있다. 해서 예수재는 단순한 예수신앙이 아닌 수록재 형식의 사적인 예수시왕신앙으로 성립된 점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의문 구성의 특성

불교에는 다양한 의례가 설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자행 의례와 대타의례는 대표적인 분류법의 하나인데, 한국불교학계에서는

였으며, 현재에도 유의미하다.

자행의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의례라고 하면 대타의례가 중심이다. 그것도 영산재와 수록재, 예수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대타의례의 특징은 소원을 빌 대상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공양하고 축원하고, 청한 분들을 봉송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큰 틀에서 보면 예수재의문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³²⁾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수재 의문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초 의례라고 할 수 있는 수록재 『중례문』과 비견할 수밖에 없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내용은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실행될 때는 운수상단 의식이나 기타 설단의의식이 행해진다. 그 까닭은 첫 편의 인유를 밝히는 변재삼보를 청해야 된다는 인식에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장에서는 의문 자체만을 놓고 구성에 담긴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예수재 의문은 삼보와 시왕에 대한 공양[薦新]이 의례의 중심이 된다면, 수록재는 무주고혼에 대한 시식이 중심이 된다. 무주고혼은 어떤 존재인가. “몸의 형태는 말라 수척하여 고목이 타는 듯 지극히 추하고, 얼굴은 불타는 듯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머리카락은 봉두난 발이고, 털과 손톱은 길고 날카로운”³³⁾ 차마 볼 수 없는 존재이다. 먹지 못해 굶어죽은 귀신의 형상이다. 이런 이들을 청하였으니 가지를 베풀어 죄업을 없애줘야 하고 공양을 베풀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불법의 진리를 들려주어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에 비해서 예수재를 실행하는, 올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수록재에 버금가는 대형 재를 올리는 이가 재를 올리는 목적은 현생에서 복과 수명이 늘어나기 위해서이고, 내생에는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무주고혼들을

32)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판은 영천사관이 가장 고본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중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52쪽) 1576년에 개판된 광흥사판도 편목 차례로 볼 때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인다. 청련사에도 이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33) 不空奉 詔譯,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T 21, 464쪽.

위해서 행하는 의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예수재 31편의 의식은 오로지 삼보와 중위의 명부와 고사관 등 명부의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예수재 올리는 연유와 관련이 있다. 예수재 실행의 배경이 되는 모티프는 재가자인 고대인도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왕에 의거한다. 빔비사라왕은 재위 25년 동안 49회의 예수재를 봉행하고도 지옥에 끌려가게 된다. 연유는 시왕에게는 공양을 올렸지만 종관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아 종관들이 빔비사라 왕이 지옥에 끌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빔비사라 왕은 종관과 권속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고 항의하고 받아들여져 다시 살아와 종관과 권속의 명목을 받아와서 예수재의식을 만들게 되었다.³⁴⁾ 이 고사를 전해주는 『예수천왕통의』의 찬자 장육암 육화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고사의 진위 여부는 역사적 사실성보다 종교적 신심과 관련지어야 할 것이다. 시왕에게만 공양을 베풀고 그 종관과 권속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공덕을 짓지 못했다는 사실은 의미 있다. 등장인물은 붓다 당시 제일의 재가신자였다. 그런 빔비사라 왕은 수없이 삼보에 수없이 공양을 올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권속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을 수도 있다. 붓다 당시라면 모르겠지만 그 후대의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문정 왕후의 예주시왕소문에 의하면 재자는 숙세의 좋은 인연을 이어 금생에 현묘한 과보를 얻어 구중궁궐에서 국왕의 은혜를 입었지만 국왕의 은혜에는 차등이 있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³⁵⁾ 하여 빔비사라 왕의 고사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양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일일이 거명하여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예수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천왕통

34) 六和撰, 『預修薦王通儀』, 韓儀叢 2, 88쪽.

35) 普雨, 『懶庵雜著』, 韓佛全 7, 587하쪽.

의』는 의문은 아니나 예수재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미리 닦는 시왕과 그 권속들을 관통하여 천신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통의(通儀)’는 ‘제불통청’에서처럼 여러 부처님을 관통하여 청하는 의식이라는 의미와 같다. 시왕과 그 권속들을 일일이 거머하고 천신(薦新)하여 금생에는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왕생극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예수재에는 천신의 헌공의식이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다.

둘째, 소청과 예경의 차서가 중시되며 위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학의 체제에서는 천자, 제후, 사(士), 서민의 상하 질서가 분명하고 엄연하다. 불교 또한 법계의 질서는 그렇다. 그것은 소청과 예경과 공양, 봉송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청이 2단계로 이뤄진다. 재의 도량과 진행을 위해 청하는 사자들과 법회를 증명하기 위해 청하는 증명단의 삼보가 하나이고, 나머지는 “지장보살을 필두로 하여 여섯 천조(天曹), 도명(道明)과 무독(無毒), 육대천왕(六大天王)과 명부(冥府)의 시왕(十王), 26판관(判官)과 삼원장군(三元將軍), 선악이부동자(善惡二簿童子)와 37귀왕(鬼王), 감재사자(監齋使者)와 직부사자(直府使者), 호법정신(護法淨神)과 토지영관(土地靈官), 이상 97위와 시왕 각부마다 162위를 합하여 259위와 추혼사자(追魂使者)로부터 일체 사지에 이르기까지 11위가 더 추가되어, 이를 다 합하면 272위”³⁶⁾가 되는 명부계의 상·중·하의 권속이 그들이다. 그러다 보니 청할 때도 정연하게 높고 낮음에 따라 질서 있게 청한다. 수록재 『중례문』에는 사직 사자를 청해 법회를 알리고, 오방의 오제를 청해 오방의 길을 열어 줄 것을 청한다. 이렇게 법회가 완성되고 나면 상위의 삼보와 중위의 현성을 청하고, 마지막으로 하위의 무주고혼을 청하게 된다. 상위의 삼보와 중위의 성현을 청할 때 그 위격에 따라 질서가 갖춰진다. 가령 상위의 불보·법보·승보를 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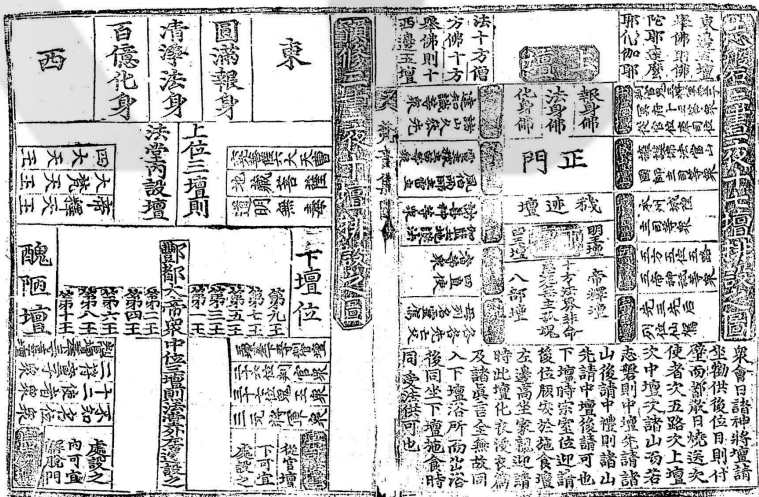
36) 六和撰, 『預修薦王通儀』, 韓儀叢 2, 88하쪽.

고, 중위의 천도등중(天道等衆), 신도등중(神道等衆), 명도등중(冥道等衆)이 청해지고, 하위에는 인로왕보살의 증명청 이후 삼계제천의 권속과 육도의 제 유정까지 24종의 고힌을 청한다. 예수재의 경우에도 의문에서 소청을 볼 수 있듯이 사직 사자가 청해지고 상위와 중위, 고사관의 소청이 있다. 문제는 상위와 중위의 그 질서에 각배재나 『권공제반문』의 질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권공제반문』³⁷⁾이나 『청문』에는 시왕청, 시왕청문이라고 하여 지장보살과 도명화상 대변장자가 권공의 증명으로 등장한다. 그에 반해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는 지장보살은 성위의 증명단에서 출현한다. 소청성위의 성현은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등 6보살, 비로자나화신천조,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범석 등 사방천왕의 7위가 증명단을 형성한다. 다음에 시왕을 청하는 소청명부에서 풍도대제가 시왕을 청하기 이전에 청해진다. 이때 청해지는 질서를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소청성위와 명부	『권공제반문』의 시왕청
소청성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등 육광보살 비로자나화신천조 등 지장화신천조 도명존자 무독귀왕 대법천왕 제석천왕 사천왕 소청명부 [중상단] 풍도대제 하원지관 지부일체성중 제일 진광대왕과 권속	소청명부위 시왕청 지장보살마하살 좌보처 도명존자 우보처 대변장자 제일 진광대왕

37) 『勸供諸般文』, 韓儀叢 2, 653하~654상쪽.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중례문』이나 『권공제반문』과 달리 도명존자 무독귀왕이나 대범천왕 등이 성위에서 청해진다는 것이다. 『중례문』의 중위의 위격인 천도등중과 신도등중이 성위에서 소청되는 데 반해 시왕권공과 같은 『권공제반문』에서는 시왕권공의 증명공덕주로는 도명존자와 대변장자가 등장한다. 이에 비해 예수재에서는 성위의 7위를 증명으로 삼고 있는데, 수록재에서 중위의 하위인 명도등중을 중위로 삼게 되면서 일어나는 예의 격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예의의 핵심은 상위를 청하고 중위를 청했을 때 중위의 대상자들은 상위에게 예경을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런데 하위의 존재인 고사판관들이 초청을 받고는 상위의 성현에게 인사를 한 다음 중위의 현성에게도 3례의 보례를 하고 있다.³⁸⁾ 수록재의 『중례문』에



예수 2주야 10단 배설지도

38)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儀叢 2, 82하쪽.

는 하위의 고훈들이 상위의 삼보에게만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고 있다.³⁹⁾ 일종의 압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재에서는 하위의 존재가 상위와 중위의 존재에게도 예를 올린다. 이는 예수재 의문의 구성의 특성으로, 아마도 이는 산 자를 위한 예수재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예의상으로 상위의 존재가 있고, 다음에 중위의 존재가 있다면 상위의 존재에게 예를 올리고 중위의 존재에게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예수재의 상단은 법당 안에 차려지고 중단은 마당에 차려지므로 [예수 2주야 10단 배설지도 참조] 법당을 향해 예배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편안히 중위에게 예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또 직속의 상관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셋째, 의문 구성과 달리 실제 의식은 현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기본 구성은 상위 중위 하위의 존재를 청하고 모든 자리에 공양을 진설하였다고 아뢰는 <제위진백편제22>로 되어 있으며, 공양을 올릴 존재들을 다 청해 놓고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의문의 구성과 달리 현재의 설행이나 고본의 영인본 메모들은 의문과 설행이 동시에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위를 청해 모시고 나면 목욕을 인도하고 자리에 앉으면 차를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 위인 중위나 하위를 청하는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중위 또한 자리에 앉으면 차를 올린다. ‘봉다탕(奉茶湯)’의 협주가 그것이다. 상위를 청하고도 그렇고, 중위의 명부시왕과 권속을 청하고도 그렇다. 그런데 영인본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영인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본들이 현좌계주 다음에 봉다탕 이후에 작은 글씨로 공양계송이나⁴⁰⁾ <기성가지편>을 사기(私記)하고 있다.⁴¹⁾ 기성가지편은 제22 제위진백편을 마치고

39) 『中禮文』, 韓儀叢 2, 236쪽.

40)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72상쪽.

41)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81하쪽.

상단과 중단 순으로 기성가지를 하라는 것이다. 초청을 해놓고 공양 시간까지 틈이 있으니 차만 올리고 다음 의식을 하거나 뺏히고 하니 공양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의문과 실행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위, 중위, 하위의 존재를 청하는 수록재의 초청과 공양을 비교해 보면 의미 있는 사실과 특성을 알 수 있게 된다. 수록재에는 초청의 대상에 따라 대·중·소의 의문이 사용되는데, 대례의 수록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반문』에서는 상위의 존재를 청해 모시고 예경을 한 다음 바로 공양을 올리고, 또 중위의 존재를 청하고 나서도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하위의 존재를 청하고 나서 목욕과 예경을 마친 다음 공양을 베푼다.⁴²⁾ 그렇지만 중례의 수록의문인 『중례문』이나⁴³⁾ 소례의 『결수문』도⁴⁴⁾ 예수재의 그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본의 의문과 달리 초청하고 바로 공양을 올린다. 다만 예수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서는 상위와 중위의 성현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하위의 고사판관 공양 이전에 화청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위와 중위의 성현 공양에 이어 고사판관은 공양하지 않고 상위 중위를 고루 청해 축원하고 나서 고사판관에 공양하는 형태와 유사한 형태는 『운수단가사』에서도 확인된다. 상위와 중위를 청해 놓고 상위와 중위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소청하위로 들어가는 것이다.⁴⁵⁾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초청과 공양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양상이 일어나게 될까.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초청한 존재들을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다른 하위의 존재를 청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례 진행의 애로사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희

42)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韓儀叢 1, 586~612쪽.

43) 竹庵 編,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韓儀叢 2, 221~242쪽.

4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韓儀叢 1, 627~639쪽.

45) 休靜 撰, 『雲水壇詞』, 韓儀叢 2, 12~20쪽.

를 하려면 모두가 모인 다음에 시작하는가, 아니면 그룹별로 하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규모가 작을 때는 다 초청하고 나서 공양을 올리고 베푸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례 진행상 공양의식이 클라이맥스가 되어 공양을 올리고 다음 의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문에는 초청이 끝난 다음에 공양을 올리게 되어 다탕을 올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의문에 나타난 의례의 이상과 실행의 현실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넷째, 화청으로 의례를 재설한다는 것이다. 상위와 중위의 공양을 마치고 고사판관단의 공양을 올리기 전에 행하는데, 화청에 대해 그간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였다. 비근한 예로 “속가에서 행하면 회심곡이요, 불가에서 행하면 화청이다”라고 쉽게 단언한다.⁴⁶⁾ 그렇지만 예수재의문에 기록된 화청의 내용은 여러 보살님과 천왕, 명부의 10대왕과 10대왕 각부 권속 31곳을 고루 청하여[和請] 당해 보살과 대왕들을 부르며, “모씨 보체를 연민히 여겨 보호하시고 [중화] 현생에는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정토에 나게 하소서.”⁴⁷⁾라고 축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 “현증복수 당생정찰: 현생에는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정토에 나게 하소서.” 하는 구절을 대중이 화답하는, 주고받기 하는 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고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화청과 회심곡에 대한 이해의 문제 이전에 화청이나 회심곡 형식의 축원이 이곳에서 행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전의 초청과 공양의식은 한문과 진언으로 진행되었다. 한문을 잘 아는 이라 할지라도 불교 의문의 원문을 받아들이고 의례를 참관해도 불교 의식이 어떻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 그것은 범

46) 헤일명조, 『불교, 화청의식 복원에 관한 연구』, (주)북랩, 2013, 29쪽. 주37) 재인용.

47)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84상쪽.

패로 의문을 읽거나 특별히 소리를 지어 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범패를 아는 이들은 재장에서 극소수의 어산 범패 범음 승려이다. 이들 이외에는 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간절한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재 화청에는 적어도 의문대로 화청하면 모씨 보체 다시 말해 설판재자는 30여 번 이상 거명이 된다. 이는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화청하여 축원하는 수록재 『중례문』 절차에 비하면 10배를 넘는다.⁴⁸⁾ 대개 재장에서 재자들은 유치를 하거나 축원을 할 때 자신의 함자가 거명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행여 동참한 자신이 거명되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까 염려한다. 특히 예수재는 생축발원으로 설판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화청에서 ‘모씨 보체’를 매 보살님과 천신과 대왕들을 부를 때 불러야 한다. 해서 화청은 예수재의문에는 한문으로 이뤄져 있고, 모씨 보체로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이 동참한 재회에서는 “지심결청 지심결청 일회대중 일심봉칭”하며 회심곡 유형의 노래를 화청이라고 하여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재에서의 화청은 범보화 삼신불을 제외한 상위와 일체 존재를 다시 청해 불러 설판 재자인 모씨 보체를 연민히 여기고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정토에 가게 하여 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다. 이 화청을 예수재 상위의 지장보살과 중위의 명부시왕과 권속에게 반복하고 있는 구성은 도드라진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예수재에서 염송되는 경전은 금강경이라는 사실이다. 예수재에서는 수록재의 법화경과 다른 관점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의 교설은 무주고혼들에게 제법의 실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금강경에서는 그 사상적 본질보다 금강불과의 몸을 갖고 복과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예수재 개설의

48) 智還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韓佛全 11, 474상중쪽.

인연이 된 빈비사라 왕의 저승 경험처럼 <금강경찬>에는 비산현령 유 씨 여자의 저승 경험이 등장한다.⁴⁹⁾ 그 고사에 의지해 보면 금강경 간경이 제시되는 예수재를 위해 ‘금강경찬’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상위와 중위의 공양을 마치고 보회향진언 이후에 ‘송금강경준권(誦金剛經准卷)’⁵⁰⁾이라는 주석이 등장하는데, 이 주석은 <12생상속>에 의거한 경전 간경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송심경(誦心經)’⁵¹⁾이라는 주석도 볼 수 있는데, 간편함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라 하겠다. 정리하면, 16세기 중엽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는 금강경 송경이 제시되었지만, 18세기 초반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에는 금강경찬 송경이 제시되고 있는데,⁵²⁾ 이는 5천자가 넘는 금강경을 수십 권 간경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금강경찬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전 몇 권’은 해당 경전 몇 권을 염송하는 것인데, 예수재를 설판한 재자는 저승에서 갇아야 할 빛을 갇고 미리 읽어야 할 경전을 염송하는 재회로써 공덕을 닦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IV. 의례 실행의 특징

예수재 의문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의례 자체로서의 완결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에는 의례 실행을 위한 설단 과정을 의례화해 놓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례의 특징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예수

49) 『勸供諸般文』, 韓儀叢 1, 657하쪽.

50)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84상쪽.

51) 一峰 講主, 『예수의문』, 燃燈社, 1928, 47쪽.

52)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490상쪽.

재 또한 그 의문만으로 완전하게 의례를 실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것은 수록재의 그것도 다르지 않다.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이나 『자기산보문』의 경우도 그 의문대로 의례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15세 후반 이후 남겨진 「작법절차」 등의 의례절차 서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재와 마찬가지로 수록의문의 첫 장은 설회인유 편이다. 법회를 개설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 이후에 입장을 참회하고 도량을 청결히 엄정하고 결계하고 하는 의례가 그 의문에 실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에는 각 의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중례문작법절차〉, 〈소례결수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를 제시하고 있다.⁵³⁾ 〈중례문작법절차〉를 보면, 『중례문』의 의문 이전에 할 의식이 대중이 작법처에 모이며 종을 7타 치고 나발을 울리고 바라를 3번 내린 다음 건회소를 읽는다, 다시 할향 할축 할화를 하고 대회소를 읽고 바라를 울린 다음 삼보를 찬탄하고 귀의하는 의식을 하고 다시 바라를 울리고 성인 앞에서 개개소를 읽고 바라를 울린 다음에 합장계와 신향계를 한 다음에 원 의문을 시작한다.⁵⁴⁾ 이와 같은 방식은 예수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따라 의례가 실행되지만, 의례 현장 상황의 종용(從容)이나 망박(忙迫)에 따라 광략(廣略)으로 견기이작(見機而作)하게 된다. 의례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회가 설판되면 재물의 준비와 배치, 설단 등 도량 건립되어야 한다. 사동중정(四棟中庭)형의 전통 사찰 구조에 적합하게 설단을 하게 되는데, 전 과정을 의식화하고 있다. 의례 실행을 위한 괘불이나 경함이나 금은전 등의 이운을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번 등 장엄시설, 공양물 등이 준비된다. 해서 의례 현장은 불교 미술의 바탕 위에 의문이라는 불교 교학과 문학, 법패라는 불

53) 『靈山大會作法節次』, 韓儀叢 2, 129~153쪽.

54) 『靈山大會作法節次』, 139쪽.

교 음악이 대중의 소망을 채워주는 신앙과 문화의 산실이자 보고가 된다. 이 장에서 다룬 의례 실행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현재 실행되는 한국 불교 주요 예수재 의문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절차의 양상과 양주 청련사 예수재의 의문과 그 실행 절차를 비교하여, 의문(儀文)의 측면과 실행(設行)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의문의 측면

수륙재나 예수재의 의문은 원 의문과 작법절차가 일치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근래의 양상이다. 전통 수륙재의 경우 『중례문』·『결수문』·『지반문』·『배비문』·『자기문』과 『공양문』이 필요하고 『예수문』도 빠질 수 없었다. 해서 대중소의 여러 의문을⁵⁵⁾ 어산 탁자 위에 갖춰놓고 있는 모습을 1759년 봉서암 <감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⁶⁾ 의례 설판 상황에 따라 의문을 선택하여 의례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지 않고 한 의문만으로 의례를 실행하려다 보니 어산 승려의 ‘어산집’들에는 다양한 메모나 삼지 의문이 필요하였다. 근현대 한국불교 의례의 한 전범 역할을 수행하는 『석문의법』(1935)에만 해도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싣고 있다. 하지만 1928년 연등사(燃燈社)에서 어장 일봉 화상이 강한 『예수의문』⁵⁷⁾은 현왕청에서 시작하여 가람단 풍우단 용왕단 결단분위 예수작법과 대령소를 끝으로 전통의 예수이문이 편제되어 있다. 전통예수재와 축약되고 변용된 근현대 예수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인데 아직 소문은 해당 자리에 편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전통과

55)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호, 한국불교학회, 2015, 433쪽.

56) 鄭明熙, 「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32쪽.

57) 一峰 講主, 『예수의문』, 燃燈社, 1928, 목차.

근·현대의 징검다리 의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만으로 예수재 실행이 어려워 원초 의문에 예수재에서 실행되는 대령과 관육, 쾌불이운, 운수상단과 소문 등을 합편하여 한 권의 책으로 의례를 집전할 수 있는 의문을 성립하고 있다. 제방의 유명 어장들은 자신이 전수 받은 의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활용하고 있고, 후학들 또한 각자 그것을 필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복사가 일반화된 이후의 예수재 복사본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⁵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북불교연합회에서 『권공각배영산의문』·『점안의문』·『수륙의문』과 함께 필사본으로 간행한 『예수의문』(1988)이 있다. 이 의문은 현대 한국불교 예수재의 보편적인 형태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양의 대표적인 비보사찰 동 청련의 청련사(구명 안정사) 또한 예수재가 빈번히 실행된 사찰의 성격에 걸맞게 어산 상진의 주도로 예수재의문을 간행하고 있다. 서울의 안정사에서 의 예수재나 근래 빈번히 실행되는 예수재의 의문은 견기이작의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의문은 의례 실행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문 그 자체에 담긴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청련사 어장 상진이 편찬한 『예수재의문』⁵⁹⁾의 구성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의식들이 편제되어 있다.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조전점안, 금은전이운, 쾌불이운(육거불로 마침), 이어 운수상단으로 통서인유하고 예수재의식을 시작한다. 도량의 팔방을 엄정(嚴淨)에는 데는 관음보살을 청해 대비주로 도량을 엄정하고, 사자소청과 봉송, 소청성위, 소청명부, 소청고사판관, 제위진백의 상단과 중단의 권공, 화청 고사단 권공, 금강경찬, 합합소를 아뢰고, 마구단권공으로 공양의식을 마친다.

58)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보유자 박송암의 요집을 그의 제자 동주원명이 필사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다시 그의 제자 문현이 복사해 소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9) 이 자료는 출판 이전의 편집 본으로 완전한 성격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어 전시식과 관음시식으로 무주고혼과 당일 대령한 영가의 시식을 베풀고 경신봉송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현대 전북불교연합회에서 편찬한 『예수의문』⁶⁰⁾의 예수재 차서를 살펴보자. 괘불이운을 하고 법회를 세우게 인연을 밝히고, 시련, 대령, 관육으로 초청한 영가를 모신다. 이어 조전이라는 성전을 하고 금은전을 이운한다. 그리고 운수상단이라고 하여 변재삼보에게 오늘 재회가 열리게 되었음을 아뢴 다음 예수재 본편을 진행한다. 사자를 청하여 공양하고 행첩을 부탁하며 봉송하는데, 청장과 물장까지 함께 편제하고 있다. 이어 상단의 성인을 청해 목욕을 제공하고, 중단의 현성에게도 상위의 성인들처럼 목욕을 제공한다. 중위의 명부 소청과 목욕이 끝나면 기성가지하여 상위의 중위를 일괄 공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고사판 관 소청 이후에 정식으로 제위진백을 시설하고 상단과 중단의 권공을 한다. 공양을 마치고 금강심주, 금강경찬 등 진언을 염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자의 간경 권수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어 하단 권공을 하고 합합소를 읽고 마구단 권공을 하고 시식을 한다. 전(奠)시식 화엄시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공양 공덕을 회향하고 봉송하는데, 하단, 중단, 상단의 각 배송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주 청련사 주석 어장 상진이 편수한 『예수재의문』에는 어떤 특징이나 계통성이 있는가. 시련, 대령, 관육의 절차가 우선되고 있다. 괘불이운을 선행하는 전북불교연합회의 그것과 다른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범패 어장 상진의 의례 학습과 계통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

60) 김춘명 편, 『예수의문』, 전북불교연합회, 필사본, 1988. 『영산의식』 등 네 권으로 묶인 이 의문의 편자는 『영산의식』에 “덕운 강재목 편수, 일음 이재호 교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전북지역의 보편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각된다. 시련, 대령, 관육의 절차를 선행하는 의문은 서울 신촌 봉원사 박송암의 제자들이 전수받은 의문의 일반적인 차서이다. 동주 원명 소장 필사 의문이 그렇고, 송강(松江)이 편한 『요집』 또한 그 절차를 제시한다. 괘불이운이 먼저이든 시련이 먼저이든 그것이 무엇이 의미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괘불이운은 대체로 영산작법을 행할 때 쓰인다. 그렇지만 예수재는 영산작법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순수한 예수재의식에 관음시식과 전시식이 행해진다. 대령의 경우, 산 자의 예수를 지내는 김에 재자의 삼대가친을 청하여 법문을 들려주고 산 자의 공덕을 닦는 의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예수재의 공덕 닦기는 명부시왕과 권속의 공양 올리고 사후에 해야 할 전생의 빛을 미리 갚는 방식이다. 이것으로 예수의 공덕 닦기는 종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 16세기 중엽은 유학의 예제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유가적 관점에서 보면 조상에 대한 제시는 후손에게 더할 수 없는 공덕 닦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문의 편찬은 당해 편자의 문화적 계통과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장 상진이 편찬한 의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의례 실행의 현실적인 측면과 의문의 권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예수재 실행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종범음집』에는 수록재 중례문의 절차를 미시(未時), 『결수문』의 시작은 신시(申時)라고 알려주고 있고,⁶¹⁾ 『오종범음집』(1661)이나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09)의 예수작법절차에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1928년 필사된 『예수의문』에는 ‘신시(申時)’⁶²⁾라고 알려준다. 『결수문』으로 수록재를 봉행할 때의 시간 정도로 짧은 의례라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청련사 예수재 실행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신시에 회향하고 있다. 대

61) 智禪 撰, 『五種梵音集』, 韓佛全 2, 163상쪽; 智禪 撰, 『五種梵音集』, 167상쪽.

62) 一峰 講主, 『예수의문』, 燃燈社, 1928, 7후쪽.

략 6시간 정도로 진행된다. 짧은 시간에 예수재를 설행하려면 망박(忙迫)하므로 의례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상위와 중위의 성원들에게 목욕의식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상단과 중단의 영청지의(迎請之儀)에 목욕소 등을 설치하라고 주석하고 있다. 이는 설행 시간을 감안할 때 목욕의식이 생략되었지만 시간이 허락되면 목욕의식을 진행하겠다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과 의문의 권위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의례 설행의 현실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전통 예수재에서 택하고 있는 상위 중위 하위의 소청 이후에 공양을 올리는 방식을 잠시 미루고, 소청하여 곧바로 공양을 올리는 방식을 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송암의 제자 송강이 편집한 『요집』의 편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송강 편 『요집』을 답습하지 않고 현실 의례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산작법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예수재에서 영산작법의 설행은 불가능하므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예의와 의례의 형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령을 하였으므로 관음시식으로 대법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무주고혼을 위해 법당 밖에서 전시식을 할 수 있도록 의례를 편제하고 있다. 전시식과 관음시식을 모두 신고 있는 것은 수록재적인 전시식을 밖에서 함으로써 예수의 공덕을 높이고, 재자의 가친들을 위한 상시식을 법당 안에서 봉행하지만 의문의 편제는 전시식을 앞에 놓고 관음시식을 뒤로 편제하고 있다. 전 북불교연합회의 『예수의문』을 비롯해 송강 편 『요집』 등 대개의 예수재 의범들은 대체로 시식으로 ‘전시식’만 제시하거나 화엄시식을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점은 평범해 보이지만 의례에 임하는 자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초청한 모든 이들은 손님이다. 하지만 안으로 모시지도 못하는 무주고혼을 밖에서 시식하면서 그것을 뒤에 편제하지 않고 앞으로 편제해 놓은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편집본은 전통 단면 접이 방식의 제책을 할 요량으로 편집되어 있다. 의례의 가치만큼이나 의문이 귀하게 제책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의례에서 의문의 가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례에 임하는 어장의 의례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 실행의 측면

한양 도성의 오대비보 만다라 사찰 안정사(서울의 왕십리 소재, 현 양주 청련사)는 동백련의 위격으로 나라의 태평과 왕실을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었다. 서울 왕십리 청련사(일명 안정사) 터는 협소하여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동중정형이나 회랑형 구조를 지닐 수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청련사와 같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원통보전, 오른쪽에 명부전을 시설하여 생자를 위한 관음기도, 망자를 위한 지장기도와 생전예수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약사전, 미타전, 관음전, 명부전(시왕전) 등에 각 존상을 봉안하고 평소의 기도과 “수월도량공화불사”를 건립하였을 것이다. 〈청련사지〉 등의 기록이나 청련사에 소재하고 있는 전각 건립역사나 소상과 화상, 서책 등에 의지하면 다양한 전통의례문화가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³⁾ 야단의 정근법석, 야단의 예수재, 대웅전의 축상작법, 대방의 법회 등 여러 법회가 열렸을 것이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생전예수재는 특정 재자의 설판이나 윤달에 동참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1995년의 생전예수재나 2017년과 2018년에 행해진 예수재는 생전예수재가 청련사의 주

63)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문예연구』 11, 동방대불교문예연구소, 2018, 238쪽.

요한 의례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예수재신앙의 소의경전이라고 알려진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의거한다면 초하루·보름에 시왕에 권공하고 각 원불을 칭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 16세기 중반 수록재의 형식에 의거하여 성립된 예수재 의식에 의하면, 현증복수와 당생정찰의 수요에 의거해 예수재는 설행될 수밖에 없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윤달에 동참 예수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재 단독설판 예수재는 생소하지만 의문에는 모인 복위 모인(某人)과 관련해서 모관(某貫), 모권(某卷), 제모고(第某庫), 모사관(某司君)임이 분명하다. 일찍이 1960년대 말 청련사(왕십리 안정사 시절)에서는 정부 고관의 모친을 위한 단독 설판 예수재가 봉행되기도 했으며,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현재까지 청련사를 지키고 있다. 전통과 유서를 가진 안정사 현재의 청련사에서 최근 설행된 예수재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의례 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승려들에 의해서 설행된다는 것이다. 전통 예수재의 설판을 안내하는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의 설재의(設齋儀)에 의하면 설판재자는 미리 의례를 잘 아는 분을 청하여 설재해야 하는데 매사를 상세히 품수 받아야 하고 유나 등은 아침저녁 참문하라고⁶⁴⁾ 하고 있다. 영산재나 수록재, 예수재 등이 열리면 원근의 승려들이 운집하고, 또 의례에 참여하기도 한다.⁶⁵⁾ 하지만 청련사의 경우는 내부에 상주하는 분들과 어장 상진의 제자들인 안정불교대학 소속 승려들에 의해 의례가 설행된다. 이는 대형사찰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문 의례를 습득한 승려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팔순을 바라보는 주지 해경, 원로 지홍, 벽산, 심곡을 위시하여, 어장 상진과

64) 智還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466상쪽.

65) 金月雲 編著,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학출판국, 1991, 82~83쪽.

그 제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전통의례의 충실성은 압권이다. 조전과 번의 장엄 등도 사중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청련사 예수재 실행의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영산재나 수륙재, 예수재 등 전통의례의 핵심은 범패로 의문을 실현하며 재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범패를 익힌 승려들에 의해서 재회가 실행되게 되면서 한편으로 의례의 지나친 전문화는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도 있지만 범패가 없는 전통 불교의례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탁월한 범패 능력을 소유한 어장이 상주하며 전통방식의 의례로 실행하는 청련사 예수재는 실행의 면면에서 여타의 의례를 압도한다. 범패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범음성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환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대로 범패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이에 의해서 실행되는 의례에서는 의례의 긍정적인 효과를 찾기 어렵게 된다. 한국불교 전통의례에서 범패가 차지하는 위상은 자못 크다. 영산재 등이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종목 명칭이 ‘범패’였을 정도로 범패는 종교 의례 이전의 전통문화로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범패를 익힌 어장이 상주하여 실행하는 청련사 예수재의 가치는 적지 않다.

셋째는 전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칠재로 실행되는 생칠예수재의 경우 특히 명부전에서 입재와 회향 때가 아닌 2~6재 때는 명부전에서 진행되며, 매 재 때마다 상용영반으로 시식하고 헌다를 하는데, 독특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제사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사찰에서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자의 신심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련사의 전각 구조는 대웅전 좌우에 통상 위치하는 관음전과 명부전이 대웅전보다 10여 미터 앞으로 나와 있다. 대웅전 주불을 시립하고 있는 형상인데, 이는 산 자의 관음기도와 망자의 지장기도로 기도를 완성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예수시왕생칠재의 회향 법회 때는 관음전에서 명부전을 향해 기도를 하고 하단의 헌다를 할 때는 명부전으로 건너와서 잔을 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명부전에서 시왕과 권속의 공양을 마치고 대중은 인로왕보살의 번과 연을 따라 예수재를 설행하는 대적광전 앞의 도량에 운집하며 불탑을 요잡하고, 봉송할 때 위목을 하나씩 들고 소대로 떠나는 장면은 전각이나 도량의 지형을 활용한 것으로 동참 대중의 신심 고취에 기여하며, 청련사 예수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V. 결어

한국불교 재공의식의 하나라고 알려진 생전예수재의 성립과 의문의 성립과 의문의 구성, 의례 실행의 특성 등을 세 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의례의 성립의 특징으로는, 그동안 생전예수재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나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이 소의경전이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예수재는 단순한 시왕신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의문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성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 ‘찬요’라는 명칭이나 서문의 문법, 구조 등에서 『중례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례문』은 100편본 『천지명양수륙의문』에서 54편으로 초출하여 축약한 것처럼,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31편 또한 『중례문』의 구조를 따르면서 편찬한 것으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수록재 『중례문』의 중위 신중 가운데 잘 부각되지 않은 명부 시왕 등 명부중을 중심으로 예수재 의문을 찬요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예수재는 예수신앙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의 시왕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록재의 명부시왕과 권속을 집중적으로 초청해 공양하고 전생의 빛을 미리 값으며

선근 공덕을 닦아 현생에서도 복과 수명을 늘이고 내생에는 왕생극락을 이루려는 2중의 소원을 동시에 성취하는 의례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의문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예수재 의문은 공양[薦新]이 의례의 중심이 되며, 소청과 예경의 차서가 중시되며 위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의문의 구성과 달리 의식은 현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청으로 의례를 재설하는데, 예수재에서의 화청은 법보화 삼신불을 제외한 상위와 일체 존재를 다시 청해 불러 설판 재자인 모씨 보체를 연민히 여기고 복과 수명 늘고 내생에는 정토에 나가하여 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화청을 예수재 상위의 지장보살과 중위의 명부시왕과 권속에게 반복하고 있는 구성은 도드라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예수재에서 염송되는 경전은, 수록재에서의 법화경과 달리 금강경이 독송되는데, 법화경이 고탈들에게 제법의 실상을 일러주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예수재는 금강불괴의 몸을 갖고 복과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금강경을 염송하는데, 후대에 간략한 금강경찬으로 정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장에서는 양주 청련사 생전예수재 실행의 특징을 의문과 실행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의문의 측면에서 보면 범패 어장 상진의 의례 학습과 계통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련, 대령, 관육의 절차를 선행하는 의문은 서울 봉원사 주석 어장 박송암의 제자들이 전수받은 의문의 일반적인 차서라는 것이며, 다음은 의례 실행의 현실적인 측면과 의문의 권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의와 의례의 형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례 실행의 특징을 보면, 의례 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승려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 영산재나 수록재, 예수재 등 전통의례의 핵심은 범패로 의문을 실현하며 재의를 이끌고 있다는 것, 도량의 전각을 최대한 활용하

여 동참 대중의 신심 고취에 기여하는 것이, 청련사 예수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9.04.30 투고 / 2019.05.27 심사완료 / 2019.05.27 게재확정)

K C I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the ritual program
and performance of Yesujae
– Focusing on the ritual texts and Yesujae at Cheongnyeonsa –

Lee, Seong-woon

Buddhism has a variety of ways to relieve mankind, so-called expedient, one of which, Yesujae (預修齋) is a kind of Chilchiljae(七七齋, the weekly ritual for seven weeks). People perform Chilchiljae in order to pray for the deceased to be reborn in Buddha's land while Yesujae is the ritual that one performs for oneself during life.

This writing considers the characteristic of the ritual program and performance of Yesujae. Initially, It is demonstrated that Yesujae was established as the form of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in the early 16th century, revolving around the ten kings of hell in Chanyo(纂要, the compilation of the gist) of Suryukjae, far from general belief of the ten kings or that of Yesu.

Later the ritual oration(儀文) changes and becomes an offering to the heavenly gods while Socheong(召請, invitation) and Yegyeong(禮敬, worship) undergo the change in their order and hierarchy. The ritual performance is practic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unlike the ritual oration and rebuild into Hwachung(和請, Buddhist gospel song). Also, The Diamond Sutra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is recited.

The ritual oration and performance of Yesujae at Cheongnyeonsa is mainly examined on their characteristic. As for the characteristic of the ritual oration, the line of Eosan (the monks or nuns singing a Buddhist ritual song) Sangjin's Beompae(梵唄, the Buddhist music) is identified and both the element of reality and authentic ritual oration are reflected. Emphasis is placed upon the proprieties and formality. As a feature of its ritual performance, all monks resident in Cheongnyeonsa together take part in the ritual while the head Esan Sangjin of exceptional ability of Beompae is in control of the ritual. The ritual also takes full advantage of all the buildings and the courtyard at the temple.

□ Keyword

Cheongnyeonsa, Yesujae(預修齋), Esan Sangjin, Yesusiwanchilgjaeuich-anyo (預修十王七齋儀纂要), Cheonjimyeongsuryukjaeuichanyo(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The ten kings of hell(冥府十王), Hwachung(和請, Buddhist gospel song)

[참고문헌]

T: 大正新修大藏經

X: 卍新纂續藏經

韓儀叢: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삼성암, 1993.

韓佛全: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중종실록』 권34

不空奉 詔譯,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T 21.

『佛說預修十王生七經』, X 1.

『勸供諸般文』, 韓儀叢 2.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韓儀叢 2.

普雨, 『懶庵雜著』, 韓佛全 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韓儀叢 1.

『靈山大會作法節次』, 韓儀叢 2.

六和 撰, 『預修薦王通儀』, 韓儀叢 2.

一峰 講主, 『예수의문』, 燃燈社, 1928.

仔夔 集,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 순천 송광사 개간. 1532.

竹庵 編,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韓儀叢 2.

宗鑑 集, 『釋門正統』第四, X 75.

『中禮文』, 韓儀叢 2.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韓儀叢 1.

智禪 撰, 『五種梵音集』, 韓儀叢 2.

智禪 撰, 『五種梵音集』, 韓佛全 2.

智還 撰,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韓儀叢 1.

『天地冥陽水陸雜文』卷下, 韓儀叢 1.

休靜 撰, 『雲水壇謠詞』, 韓儀叢 2.

金月雲 編著,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학출판국, 1991.

鎌田茂雄 著, 『中國の佛教儀禮』,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김준명 편, 『예수의문』(필사본), 전북불교연합회, 1988.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校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安震湖, 『釋門儀範』上卷, 卍商會, 1935.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 한국빠알리성접협회, 2014.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韓龍雲 著, 徐景洙 譯, 『朝鮮佛教惟新論』, 三星文化財團, 1972.

헤일명조, 『불교, 화청의식 복원에 관한 연구』, (주)북랩, 2013.

송일기 · 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書誌學研究』 43輯, 書誌學會, 2009.

심효섭,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호, 한국불교학회, 2015.

이성운, 「預修齋와 各拜齋의 同異」, 『정토학연구』 30집, 한국정토학회, 2018.

이성운,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불교문예연구』 11, 동방대불교문예연구소, 2018.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 23집, 한국정토학회, 2015.

- 이소오카 테츠야, 「水陸齋의 사회학적 의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 · 한국불교민속학회, 2012.
- 李應周, 「麗末鮮初 佛教儀禮의 축소와 薦度齋의 역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鄭明熙, 「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 최중운,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대한불교천태종, (사)진단전통예술보존회, 2015.
-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к с і